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

군산시, 2025년까지 86억 투입...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육성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총 86억을 투입해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수목적 모빌리티(특장차·건설기계·상용차)의 전동화에 적합한 슈퍼커패시터 이차전지·연료전지 융합 전동추진체 개발 및 모빌리티 적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슈퍼커패시터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고품질 에너지 저장장치로 이차전지 대비 고출력 구현 및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저온에서도 성능이 우수해 고출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 군산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전기기술훈련원이 주관하고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캠릭종합기술원이 참여해 슈퍼커패시터 적용 융합형 전동추진체 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시험평가인증 등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이차전지 및 건설기계 관련 기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차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다변화로 주력 산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합열지역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폭넓은 홍보와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합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앞장

익산시, 지역공동체 화합... 아이디어 공유·봉사활동 계기

익산시는 합열지역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폭넓은 홍보와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협약을 맺은 합열고등학교 19명의 학생들과 양조장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기존 도시재생대학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이론 실습,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 도시재생의 실재를 경험하고 애정심을 갖는 등 지역민과의 공동체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합열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합열지역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긍정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공동체와 도시재생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전했다.

합열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배종호 회장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거리감 없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민협의체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젊은 학생들의 참여로 활력이 넘치는 합열읍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재생센터는 최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합열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도시재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 대응

정부세종청사서 전략회의 개최

익산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국·소·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 반증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현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예산확보 추진현황과 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매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김수홍·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략회의 이후 기획재정부 강준모



익산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금보전예산과정을 초청해 국소단장,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강화 특사업부서장, 담당자 등 직원 50여명을 강을 실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늦깎이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 '다각적 지원'

익산시는 배움의 시기를 놓쳤지만 포기하지 않는 늦깎이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평생학습관 부설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문해 학습자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인 '익산행복학교'는 지난해 4월 12개 읍면동 23개반 288명 규모에서 문해교육센터 설치로 올해는 18개 읍면동 51개반 573명 규모로 대폭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문해교육센터 초등·중학 과정이 전북도교육청 학력 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면서 남산면, 금마면에서 운영되는 초등 과정 2개소 합열읍 모현동에서 운영되는 중학교과정 2개소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중·고령층 시민들을 위해 알파벳부터 파닉스(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까지 익힐 수 있는 '왕초보 영어반'과 디



지필 소외 중·고령층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경로행사 개최

군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이태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과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어버이날 행사는 경로효친과 효행 사상을 확산하고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다가 2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랑 고고장군 군산지회팀의 식전 공연과 분향사인 기념식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50회 어버이날 도지사표창 3명 전수가 이뤄졌으며, 효행자, 장한어버이,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자 총 6명이 시장표창을 받았다.

식후 행사로 어르신 콘서트에서는 김양, 방서희, 지역 가수 배지현 등 가수들이 출연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돋웠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지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연1% 저리로 소요자금의 80%까지 용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용자 한도액은 시설 개선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은 최대 2억2,000만원, 식품판매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조건은 2년 거주 4년 근속 분할상환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외식 업소 경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실내 미세먼지 해결사 스마트가든 조성

군산시는 시민들의 정밀문화향유 및 확산 거점 조성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실내 유휴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치유 휴식,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내 미세먼지 개선 등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실내 소규모 정원이다.

지난해 군산예술의전당 스마트가든을 시작으로 올해 군산 시청, 금강노인복지관, 금강미래체험관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1억 8,700만원(국비 8,000만원, 시비 1억700만원)이 투입된다.

금강노인복지관과 금강미래체험관은 각각 3,000만원을 투입해 벽면형 스마트가든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청 로비에는 사업비 1억2,700만원을 들여 시정 홍보관 정비사업과 연계해 오는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공공기관 내 휴게공간이 실내 녹색컴퓨터 탈바꿈되어 실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심신안정, 공기정화,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제공될 것이라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